



한국고분자학회 창립20주년을 축하하며

이 주 성
한국공업화학회장

20주년을 맞이한 한국고분자학회가 권위있는 학회로 발전한데 대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한국고분자학회 창립 20주년 기념호에 한국공업화학을 대표하여 축하를 올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20년전 조국 근대화를 위해 모든 국민이 불철주야 노력했던 시절에 최첨단 소재인 고분자에 관해 관심을 가진 분들이 모여 한국고분자학회를 창립하여 초창기에는 학회 사무실을 임시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내에 두기도 한 것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장성한 청년기에 접어들면서 매우 건실하고 튼튼하고 권위있는 학회로 성장한 것을 볼 때 매우 감개가 무량합니다.

현재 전자 분야에서 반도체가 최첨단의 꽃이라고 합니다만 화학공업에서는 고분자가 최첨단의 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 고분자 분야의 발전 상황은 눈부신 바가 있어 우리 일상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위치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첨단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고분자학회가 청년기에 들어섰으니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이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 나라의 경제는 세계에서 보기도 드문 고도 성장을 지속하여 왔지만 짧은 경제 개발의 역사로 인해 창조적 기술력의 확보는 매우 미흡한 면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거의 맨손으로 경제 개발에 뛰어든 우리에게 기술개발이 항상 절실한 과제였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만을 최선의 목표로 삼고 기술 패권주의와 기술 보호주의가 확산된 상황에서 WTO 체제 하 새로운 세계 질서의 형성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혹한 국제 경쟁 속에서 살아 남아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려면 이제까지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땀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의 경쟁은 더욱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독자적이고 창조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이에 대처하여야 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시점에서 잠시 머뭇거리고 한눈을 판다면 지난 20년간 어렵게 쌓아온 모든 성과가 무위로 돌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창조적 기술의 확보를 위해 한국고분자학회는 물론 모든 과학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각 학회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때라 생각합니다. 늦더라도 시작하는 것이 낫다는 말과 같이 모두 노력해 봅시다.

앞으로 곧 다가올 21세기는 무한한 경쟁 체제 하에서 과학기술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과학기술이 물질적 정신적 풍요를 가져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21세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이 기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과학과 기술을 맡은 우리들이 사회 구성원의 행복 증진에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고 발표되는 결실 하나 하나가 생산력의 초석이 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며 세계 수준의 국가 산업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우리가 꿈꾸는 21세기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결실인 것입니다.

한국고분자학회 여러분의 노력의 결실이 21세기에는 세계에서 우뚝선 한국고분자학회가 되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한국고분자학회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귀학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